

# 아리셀 대책위, 유족 악성 왜곡보도 중단요청 “고통 앞에 중립 없어”

✎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4.07.19 09:53

‘추모와 다짐’의 시민추모제, 노동당과 목회자 함께해



아리셀 중대재해 대책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가 참사관련 악의적 왜곡보도 중단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악의적 보도와 논설 등은 가해자인 에스코넥·아리셀의 ‘가해자 책임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교섭 회피,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들이 침해 받고 있는 상황을 교묘한 글장난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입히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지역언론 [지자체 지원금만 2억 573만 원... 화성 아리셀 공장 ‘눈먼 돈’ 논란’, 7월 15일 보도] 기사를 꼽으면서 “기사에서는 제 피해자 가족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일차적으로 세금으로 지원되지만, 지자체는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하는 사실을 교묘히 흐리고 있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모 석간지의 논설[아리셀 참사와 외부세력, 7월 17일 보도] 역시 여론을 호도하는 악의적 논평이라고 지적을 이어갔다. 제목부터 사실관계를 왜곡해 피해자 가족, 함께 하는 '대책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다면서 "이 논평은 4명의 유가족 대표로 구성된 협의회를 마치 자격도 없는 대표 1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으로 말하는가 하면, 피해자 가족의 현재 심경과 처지를 감안해 공식발표 외에는 언론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것을 마치 대책위가 일방적으로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피해자 가족의 위임을 받아 대리하는 법률가들을 '민변'소속의 변호사들이라며 교묘하게 '민변'의 활동을 규정짓는 등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나아가 이들 '외부세력'에 의해 '배, 보상'과 관련한 '협약'이 지연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가해자인 에스코넥·아리셀의 진정성 있는 사과, 참사의 진실규명 방해, 침해되는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다"고 했다.

피해자가족협의회와 대책위는 "이런 악성 보도와 논평 등이 이번 참사의 가해자인 에스코넥·아리셀의 책임을 지우며, 국가 정책과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사회적 참사'라는 본질을 가리고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에서 기인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중대재해 참사,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언론의 책임을 환기시키며 '참사와 고통 앞에 중립은 없음'을 강조한 뒤, 이제라도 언론은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의 책임을 밝히는데 함께 해달라"라고 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대책위

### '추모와 다짐'의 시민추모제, 노동당과 목회자 함께해

이날 시민추모제는 '노동당'이 주관하고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소속 목회자 20여 명이 추모기도회를 마치고 함께 참여했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25일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들려오는 소식은 참담함을 넘어 모두를 분노케 하고 있다. 비난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가해자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대신 기업의 이윤을 취할 권리가 더 큰 우리 사회에 대한 분노이다. 세월호 참사, 고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오송 참사의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래도 되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대책위

오세욱 목사 (가온교회, 그물코 평화연구소 대표)는 “우리의 이웃이 비극적 참사를 당한 것이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했다. 우리에게 세 가지 권리가 있다. 비극을 당한 이들은 슬퍼하고 애통할 권리가 있다. ‘이제 그만 해라’라는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회사 하나의 책임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행정과 정부는 무엇을 했나? 슬픔을 위로 받을 권리가 있고 아픔을 회복할 권리가 있다. 회사는 즉각 교섭에 나와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 행정은 이를 위해 지도, 감독 등 할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희생자 가족을 아프게 하지 말라.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권리다. 여기에 국적, 인종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윤희갑 경기비정규직센터 파주 센터장은 “희생자 가족에게 용기를 내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에 죄송스럽다. 참 원통하고 분하다. 무능하기만 한 대한민국 정부에 분노한다.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 추모 공연으로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이 있었다.

김창주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는 “기장은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 왔다. 기장의 모든 교회와 교인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기도했다.

희생자 고 이준봉 님의 유족 이병렬 님(아버지)은 “세상에 올 때 내 뜻으로 오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한 것은 23 명의 아들이다. 이 아들들이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싸우자. 함께 해주시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유족발언했다.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

---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